

### 特別講演Ⅲ

#### 고분자 재료의 마찰 및 마모 특성

#### 운재론

한국과학기술원 生산공학과

고분자 재료를 이용한 기계부품의 대체는 고분자의 저렴한 가격, 탁월한 화학적 저항성 (Chemical resistance) 내마모성, 운활유의 불필요성 등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공업이나 정밀공업등에의 응용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고분자 재료를 이용한 복합재료도 운활 부품 (Tribological part) 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합재료의 마모특성은 구성성분 및 보강재료의 배열방향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그 마모특성도 순수고분자 재료와 크게 다르다. 순수고분자의 마찰 및 마모특성은 고분자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감마선이나 헬리움 플라즈마 (helium plasma)로 조사된 (irradiated) 고분자의 마모거동은 고분자의 마모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순수고분자 및 조사된 고분자의 마찰 및 마모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간단한 마모모델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응력해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열경화성 수지나 비결정성 (amorphous) 열가소성 고분자의 마모는 표면에서의 예진성파단 (brittle fracture)에 의한 마모파편의 형성으로 일어난다. 결정성 고분자 (semi-crystalline polymers)는 그 분자구조 및

미세형태 (morphology)에 따라 두 가지의 마모현상을 갖는다. 두꺼운 덩어리 (thick lump) 형태의 마모파편과 얇은 필름 (thin film)의 형태가 그것이다. 얇은 필름의 형성은 세 가지의 대표적 선형고분자 (linear polymers)에서만 발생한다. PTFE, HDPE, POM이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 활주마찰할 경우에 얇은 필름이 형성되어 반대면 (counter-face)으로 전달된다. 선형고분자의 미세 구조는 분자간의 미끄럼이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어, 수직 및 수평응력이 마찰에 의하여 주어졌을 때 고분자 표면에서 분자배열 및 탄소성 변형 내지는 점탄성이 유동이 발생하여 얇은 필름이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진다. 선형 고분자의 표면을 전자빔 (electron beam)이나 감마선 (gamma ray)으로 조사하면 상당히 깊게 침투하여 고분자의 기계적 성질이 변화한다. 이때 방사선의 침투 깊이는 재료와 조사방법 (irradiation method) 및 조사환경 (environment), 조사 에너지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들면 HDPE 이 감마선으로 조사된 경우 교차 결합 (crosslinking)이 깊이 형성되어 연성 (ductile)에서 메糍성 (brittle)으로 성질이 변하며 마찰 및 마모가 증가한다. 마모파편의 형성도 얇은 필름의 형태에서 두꺼운 덩어리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PTFE의 경우에는 조사된 후에 마찰이 증가하고 마모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PTFE의 경우에는 교차결합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분자의 분해 (degradation)에 의하여 미세형태 (morphology)가 크게 달라진다. HDPE의 표면을 헬리움 프라즈마로 처리하면 얇은 표면막에서만 교차결합이 발생하여 표면경화 (surface hardening)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HDPE의 마찰계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 마모가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비결정성 열가소성 수지, 결정성 열가소성 수지, 조사처리된 선형고분자, 열경화성 수지등의 마모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정립된 대표적 마모 이론을 정리하고 고분자에 적합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모모델은

세 가지의 경우를 고려한다. 첫째는 선형고분자의 경우이고 둘째는 열경화성 수지, 비결정성 열가소성 수지 및 에너지 조사 (energy irradiation) 된 선형고분자의 경우이고, 세째는 표면경화된 선형고분자의 경우이다. 첫째 경우는 고분자 표면층의 강도와 탄성계수가 나머지 부분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둘째의 경우는 전체고분자가 균질하다고 가정하며, 세째의 경우는 표면경화에 의하여 표면층만 강도 및 탄성 계수가 높다고 가정한다. 마찰에 의하여 수직응력과 수평응력이 접촉표면에 가해졌을 때 응력과 스트레인의 분포에 따라 소성변형의 크기를 알 수 있고 파괴(failure)가 가능한 지점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의 경우에는 표면층에서 연성파괴가 일어나 얇은 필름의 전달이 가능할 것이며, 둘째의 경우에는 표면층보다 아래에서 최대 변형이 발생하여 두꺼운 마모파편이 형성되며, 세째의 경우에는 표면층이나 또는 그 아래층에서도 제한된 소성변형이 유발되나 그 변형의 크기가 작아서 마모가 최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마모모델의 질적증명을 위하여 이행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탄소성 (elastic-plastic) 접촉 응력해석 (contact stress analysis)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고분자 재료의 마모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의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